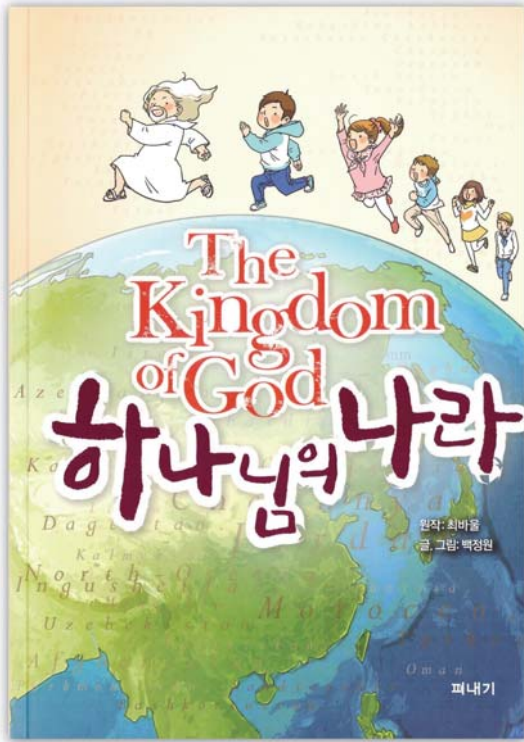


# 인터콥, 가계저주론, 천국지옥 간증 변화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조민음 기자 | jogogo@hanmail.net

**여러 교단으로부터** 신학적 문제를 지적받아온 인터콥은 ‘지도받고 수정했다’로 일관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 있는 사상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이 주장하는 ‘가계저주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 예정통합과 예정합신에서 참여금지 결의가 해제된 이윤호 목사는 소소한 수정만 거쳐 같은 사상을 담은 책을 출판했다. 여기에 활발한 치유사역은 덤이다. 총회에 서약 서까지 제출하고 지도받았다는 구순연 집사는 여전히 천국지옥 간증에 여념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KWMA 지도종료 3개월 만에 발간된 만화책  
원작 최바울, 글·그림 백정원

가장 큰 문제점은 교단에서, 결의를 해제하는 것 혹은 서약서를 받거나 당사자의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무장해제 하듯 모든 상황을 끝내버린 데 있다. 하지만 최소 2~3년은 서약서대로 고치고 있는지, 지도를 받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이사장 박중순 목사의 인터뷰에 대한 지도와 감시가 올바르게 이뤄졌다면 KWMA의 지도종료 3개월 만에 기존과 동일한 사상을 담은 책이 출판될 수 있었을까? 이윤호 목사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예정합신과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지도편달을 받았다고 했던 약속이 성실히 지켜졌다면 일년 만에 문제 있는 책을 발간할 수 있었을까? 구순연 집사의 여전한 천국지옥 간증은 어떤 지도편달의 결과물일까?

인터뷰를 지도했던 KWMA의 한 관계자는 최바울 선교사가 문제 있는 책을 다시 발간했다는 기자의 말에 사실을 몰랐다면 어느 정도로 (잘못된) 표현했는지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 책을



이윤호 목사는 결의 해제 일 년 만에 소소한 수정만 거쳐 같은 사상을 담은 책을 발간했다.



찾아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이유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또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국교회의 이단 문제는

몇 년 시간이 흐르면 금세 수면 아래로 묻혀버린다. 교과 갈등과 연구자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동일한 문제의 반복으로 이어진다. 문제를 지적받은 이들이 누구보다 이런 생리를 잘 알고 이용하진 않을까? 이에 대처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종**